“바른 가르침 전하고 있나” 반면교사 계기를

최순실 사태로 본 종교의 역할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구원파를 이끈 유병언이 연관된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다시 신흥 종교가 스캔들의 뒷 배경으로 등장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은 신흥 종교 전반에 대해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교의 본질을 모른 채 전체를 매도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종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면교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바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원 이사는 11월 1일자 뉴스레터 ‘종교문화 다시 읽기’에서 “종교는 칼과 같아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최태민 부녀가 종교를 이용해 성추행을 저지르고 거대한 재산을 축적했다면, 그리고 딸 최순실이 종교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했다면 그 종교의 내용과 성격에 관계없이 그 종교는 사이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최태민 부녀의 종교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종교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종교를 통해 살아온 초법적인 범법 행위에서 먼저 찾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는 “신흥 종교들은 전부 ‘사이비’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면서도 “종교가 제대로 된 가르침을 전하지 않고 교단 지도자의 사욕을 채우는 것이 ‘사이비’고 비판받아야 할 행위”라고 역설했다.

“부처님께서 부도덕한 윤리를 가르치거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종교를 경계하라고 했다”고 전제한 김 명예교수는 “현재 한국불교가 이 같은 경계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자칫 사회의 보편적 윤리를 벗어나고 있지 않는지를 또는 역기능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를 내부 자정을 통해 끊임없이 일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명예교수는 종교가 보이는 사회적 역기능으로 △권력 · 세속적 위치를 종교지도자가 야합하는 것 △보수화돼 사회 기득권을 위한 종교로 머무는 것을 꼽았다. 김 명예교수는 “이 같은 역기능은 부처님이 설하신 무아 · 연기 · 자비와는 거리가 멀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팔정도, 십선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윤리운동을 한국불교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반면교사(反面敎師)’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부처님 초기 경전에는 사술(邪術)에 대한 비판들이 많다. 그럼 점에서 불교가 제대로 된 가치를 대중들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불교를 비롯한 기성 종교는 반성의 여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교는 상식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시민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교도 거국내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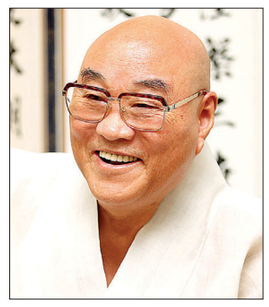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장은 종교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감시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박 원장은 “최순실 사태는 종교가 공적 영역의 재화를 탐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이를 막지 못한 박 대통령에게 근원적 책임이 있고, 이를 뽑은 국민과 제대로 보좌하지 않는 주변 인물들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어 “종교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은 종교가 건강치 못하다는 것이다. 종교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다”며 “불교계 역시 부처님 가르침에 맞게 살고 있는지,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제14회 대원상 대상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

11월 2일 심사, 금강 스님 · 바른법연구원 · 병불련 등 선정



제14회 대원상 대상에 천호월서희망재단 이사장이자 법주사 조실인 월서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11월 2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14회 대원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포교대상 출가부문 대상엔 월서 스님, 특별상엔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이 선정됐다. 재가부문은 특별상에 바른법연구원과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장려상에 녹운회가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콘텐츠대상 우수상은 오숙진 회화작가의 ‘Manda_La_명상의 시간’, 장려상은 불교포커스 팟캐스트 ‘이미령의 책잡히다’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포교대상 출가부문 대상에 선정된 월서 스님은 2012년 국제구호단체 천호월서희망재단을 설립, 라오스 · 캄보디아 · 네팔 등 오지마을 학교 개보수 및 교육지원, 환경개산 사업을 전개해왔다.

출가부문 특별상 금강 스님은 한문학당, 템플스테이, 참선수행, 괘불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반인들에게 불교를 전파한 공로가 인정됐다.

재가부문 바른법연구원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금강경〉 해설과 무료 급식소 ‘하심정’을 운영해왔다. 병원불자연합회는 의료사각지대에 처한 소외계층에 대한 자비나눔을, 동산불교대학 1기생들이 세운 봉사모임 녹운회는 종립학교 장학금 지원과 각종 봉사활동을 펼였다. 대원상 시상식은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3층 법당서 열린다.

윤호섭 기자

위덕대 아태연구소… 원전사업 연구소 선정

3년간 총 2억원 소요, 월례특강 및 연차 포럼 진행

진각종 종립 위덕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소장 김명석)가 지난 10월 한수원 및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후원으로 실시되는 ‘원전정책연구 출연사업’서 포럼사업 주관 연구소로 선정돼 주목 받고 있다.

사업 규모는 연간 2억으로, 총 3년간 진행될 이번 사업은 위덕대 아태연구소,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 교육연구소가 1차년도 사업으로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개월간 연구를 공동 진행한다. 또한 향후 3년간 원자력 등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내외 · 부 전문가를 초청해 월례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월례특강은 격월로 매년 4회, 분기포럼 매년 3회, 그리고 7개월간의 연구결과를 발표 논의하는 연차포럼이 1회 개최된다. 연간 7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차포럼, 분기포럼, 월례특강’은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 주최, 위덕대 아태연구소 주관으로 열린다.

김주일 기자

“북한 과학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북한은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켰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키 위해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과학자로부터 북한의 과학기술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 스님)는 11월 10일 오후 7시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서 ‘북한 과학기술 진단과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주제로 31차 월례강좌를 개최한다. 강사로 나선 강호제 박사는 이날 북의 과학 기술을 활용할 새로운 남북경협과 협력의 관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호제 박사는 최근 저서 〈과학기술로 북한읽기1〉(2016)을 펴낸 북한 과학기술정책 연구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극동문제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 연구위원 등 역임한 바 있다. (02)720-0531. 참가비 5천원.

박아름 기자

삼천사 사찰도서관, 공공기여 모범 사례

조계종 ‘제15호 사찰도서관’ 10월 31일 선정 · 현판식


현판식에서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사진 오른쪽 네번째)을 비롯한 삼천사 신도 대중들이 불서 포교를 다짐하는 엄지척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불서 등 종교 · 인문 교양서적을 전해 온 사찰도서관이 조계종 인증기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삼천사 도서관이 그 주인공이다.

서울 삼천사(회주 성운)는 10월 31일 삼천사 탐방객 쉼터에서 조계종 사찰도서관 15호점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을 비롯해 인덕원 산하 구립도서관장, 삼천사 신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삼천사는 30여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불교계 최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의 근본사찰로 그동안 지역주민과 탐방객을 위한 열린문고 형식의 사찰도서관을 운영해왔다. 삼천사 사찰도서관은 구립도서관과의 다양한 MOU를 통해 16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또 최첨단 RFID 시스템 및 인터넷 대출 시스템, 자율 도서반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신청도서를 배달하는 ‘책단비’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서는 조계종 ‘부처님 글사랑, 사찰도서관’ 캠페인 일환으로 불교출판문화협회에서 전달한 장서 50권이 전달됐다.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찰도서관을 운영해왔다”며 “삼천사 사찰도서관은 불서뿐만이 아니라 가톨릭 · 개신교 등 이웃종교의 도서와 시, 수필 등 서적도 다수 보유해 지역민들의 인문교양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사찰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사찰 위상을 높이는 등 긍정효과가 있는 만큼 불교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엽서로 만나는 전통산사의 美

등재추진위, ‘한국의 전통산사’ 엽서 발간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는 ‘한국의 전통산사’ 7개 사찰을 소개하는 엽서 및 사진집을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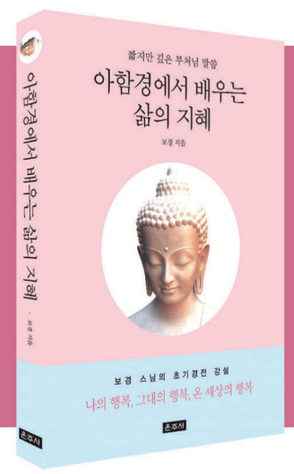
엽서와 사진집은 ‘한국의 전통산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및 세계유산적 가치가 잘 드러나는 사진들을 담았으며, 등재신청서를 보완하는 부록자료 및 ‘한국의 전통산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엽서는 사진 1컷씩 총 7컷을 선정하여 세트로 제작했으며, 사진집은 약 100컷의 사진을 △산사의 사계 △산사의 성보 △산사의 수행과 삶 등 ‘한국의 전통산사’의 자연, 유형유산, 무형유산을 소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국의 전통산사의 아름다움을 담은 엽서.

신성민 기자

부처님의 원음에서 배우는 지혜와 행복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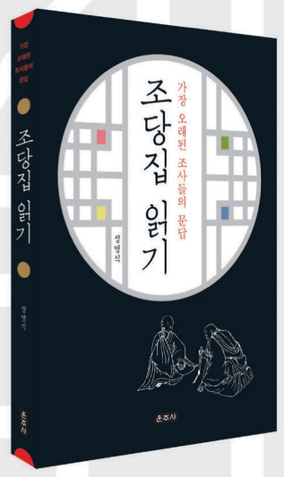
짧지만 깊은 부처님 말씀

아함경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하루에 한 편, 아함경의 가르침을 현대인에 맞게 되살린 보경스님의 초기경전 강설!

선사들의 어록과 일화, 시대를 아우르는 동서양 고전, 철학과 문학을 넘나드는 사유와 성찰!

보경 저 / 국판 / 372쪽 / 16,000원



가장 오래된 조사들의 문답

조당집 읽기



『조당집』은 당나라 시대 선의 태동과 전개과정, 선사들의 삶과 어록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전해 내려온다.

이 책은『조당집』에 수록된 중요 문답과 어구는 물론이고, 다른 선어록들을 참고하여 등장 선사들의 전기와 일화, 선어록을 덧붙이고 간략한 해설을 하였다.

정영식 저 / 신국판 / 352쪽 /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